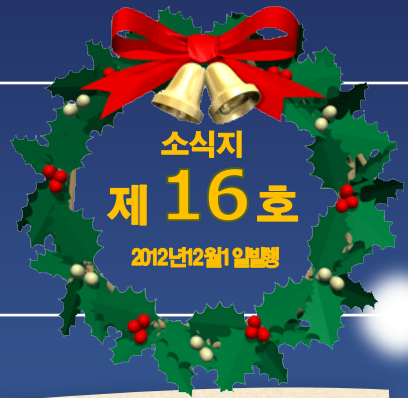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올해도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은 돌아 다시 눈이 흩 날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아침이 와서 "어제", "오늘", "내일"을 반복하며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는 확실히 지나가 아무리 바래도 시간을 거슬러 한발 앞서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것에 고통, 답이 없는 물음을 반복합니다.

마음도 영혼도 상처 입니다. 고독과 절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어둠 속 깊이 이끌어 갑니다. 그곳에서 기어 나오려고 "오늘"을 그저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이라는 항상 새로운 "지금"의 시간에 계신 분이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 안에서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 나셨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한 혼한 장면 속에 아기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는 사는 곳이나 먹는 것에 안정되지 않고, 사람들의 몰 이해와 폭력에 의해 무력한 모습을 드러 내고, 길 가운데에서 부조리 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 주기 위해, 고독한 사람의 곁에 있기 위하여, '왜' 라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살아가는 힘을 나누기 위해,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잊혀져 버리지 않고 회자되는 데, 사람 사는 것, 그것이 단지 그냥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올해도 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계절이 왔습니다. 눈이 흩 날리는 계절입니다.

사제 마리아 · 그레이스 사사모리 타쓰
함께 걷자! 프로젝트 운영위원

2 번째 크리스마스

- ✎ 다카하시 히토미 (가마이시 신애교회)
- ✎ 아카사카 유이 (센다이 기독교회)
- ✎ 무토 쇼오코 (와카마쓰 제성도교회)

일본 성공회 선교 협의회로부터

- ✎ 사제 노무라 키요시
- 「생명, 존엄 무한한 것」

2012 년의 크리스마스

지진으로 손상되었지만, 붕괴 되지 않은 건물의 해체는 지난해 보다 올해에 들어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붕괴의 위험이 있던 건물이 우선적으로 해체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성공회 토호쿠 교구 3 개의 교회도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는 면했지만 큰 피해를 입어 올 여름에 순차적으로 성당 성별 해제를 하고 해체 ·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축하하는 이 시기에, 피해 지역에서 지난해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 가마이시 신애교회에서 행해진 2011 도 크리스마스 예배



▲ 아이즈와카마쓰 제성도 교회와 성애 유치원 건물



▲ 센다이 기독교회 성당내부

몹시 기다려 지는 크리스마스

카타리나 다카하시 히토미 가마이시 신애교회 신도 / 가마이시 신애유아학원 원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마이시 신애 교회 유아 학원은 현재 신축 공사 중입니다. 7 월 예배당 성별 해체시에는, 역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에 막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8 월말에 해체가 완료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을 때에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쓸쓸함과 자신이 머물 곳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교회와 유아 학원 건물이 일체로, 기도 장소와 일의 장소가 함께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신도뿐만 아니라, 졸업 원아 보호자로부터 "웬지 쓸쓸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임시 원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실시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시 원 건물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인가, 조용히 기도를 드릴 장소는 되지 않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유아 학원에서는 크리스마스 예배 및 축하 파티 연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임시 원 건물의

홀에서는 협소해, 예배 및 축하회는 옆 시설 실내 운동장을 빌려 개최합니다. 암막도 없고, 무대도 작고 높고, 피아노도 없고, 완전히 처음의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어떤 장소에서도 올해도 어린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로서도 가장 행복 합니다. 신애 유아 학원의 자랑 직원들이 연구를 거듭해, 반드시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임시 원 건물 홀에서 열린 가마이시 신애 유아 학원의 유아 예배 ("12/11/14)

하느님의 집, 나의 교회

파토리시아 아카사카 유이 센다이 기독교회 신도



어린 시절, 혼자 성당의 한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를”라고 매주 큰 소리로 노래 부렀던, 제자란 센다이 기독교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원래 노후화가 진행 재건축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습니 다만, 3 월 11 일 대지진에 의해 성당은 사용 금지입니다 “마지막 예배 날”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은 채 싱겁게 그 오랜 세월의 막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저에게 21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 불빛이 사라진 성당에 촛불의 따뜻한 빛이 켜졌던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교구회관에서 형광등 아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센다이 기독교회 임시 예배소

그러나 올해 들어 드디어 재건축이 시작되어 현재는 빌딩의 한 공간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능하면 장소는 어디라도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당이 없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슬픈 것이군요. 기대하고 있던 바자도 매주 애찬도 못하고, 축하회에서는 축제를 눈앞에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모두와 보내는 곳 ... 빌린 빌딩은 음식 금지입니다. 저는 모두 함께 식탁을 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만, 별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애찬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와 함께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에 오는 즐거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관적인것 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만났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경험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멋진 교회를 짓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진 후 2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안나 무토테르코 아이즈와카마쯔 제성도 교회 신도



지진 후 2 번째 크리스마스를 곧 맞이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어진지 100 년이 넘는 와카 마쯔 제성도교회 건물은 더욱 손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가 열렸습 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 축하와 감사 기분을 바칩니다. 그리고 재해 입은 많은 분들에 대해 지켜 주시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있어, 토호쿠 교구의 여러분, “함께 건자! 프로젝트”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원과 기도에 의해 오랫동안 원했던, 와카마쯔 제성도 교회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카마쯔 제성도 교회는 목조 2 층 건물로 1 층은 와카마쯔 성애 유치원, 2 층이 예배당 이었지만 먼저 어린이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원 건물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예배는 정보 센터라고 부르고있는, 지금까지의 건물의 아주 조금 남겨진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넓이는 20 m² 정도로 15 명이

들어 가면 가득합니다. 그 예배당의 창문에서 건축 중 인 건물이 보이고 목수가 작업을 하는 소리도 들 려옵니다. 목수는 일요일도 일하고 계십니다. 곧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예배에 많은 분들이 계시 겠지요. 이 좁은 예배당에서 어떤 식으로하면 좋 을까,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기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와카마쯔 제 성도 교회 예배당 입구

생명 존엄 무한한 것들 ~ 일본 성공회 선교 협의회 ~

사제 노무라 키요시 함께 걷자! 프로젝트 운영 위원

지난 9 월 14 일 (금) ~17 일 (월)의 일정으로, 하마나 호반의 교육 시설 "카리앗쿠"에서 신도 · 교역자 약 140 명이 모여 "생명 존엄 무한한 것"의 테마로 "2012 년 일본 성공회 선교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래 이 선교협의회는 신도 · 교역자 감소, 재정 위기등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나누면서 일본 성공회의 미래와 비전을 그리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재난에 의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내용이나 방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지진 해일에 의해 떠내려간 집, 잔해더미가 된 도시와 마을, 많은 생명을 빼앗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의 모습 등이 연이어 TV 에 비추어 매우 현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광경이 몇 번이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인 중에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용서 하신다'라는 신앙적인 물음을 느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것이 좋은 것인가, 또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도대체 교회의 선교 · 목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일본 성공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겨우 도착한 하나의 방향이 "함께 걷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내 던져진 사람들, 슬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걷자. 아무런 힘도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믿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옆에 동행하고 싶다. 그것이 일본 성공회로

서의 이재민 지원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에 힘입어 오늘까지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성공회의 선교 비전을 그리려는 선교협의회에 내용에 관계하지 않을리 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본 성공회에서 이 경험을 빼고, 교회의 선교 · 목회를 말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선교협의회는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현지 담당자 하세가와 키요즈미 사제와 고시야마 겐조 사제가 초대 이 대지진을 통해 경험된 것이 나누어 졌습니다. 하세가와 사제는 이 이재민 지원의 활동이 확실하게 주 예수에 의해 인도되어 온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방문했을 때, 주 예수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고시야마 사제는 방사능 오염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여러 당혹감과 마음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 관계의 고뇌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러나 개개인의 옆에 동행, 함께 걷는 것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는 선교 · 목회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사용해보고를하는 고시야마 겐조 사제

그것은 니시하라 렌타 사제의 기초 연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니시하라 사제는 예수의 삶 자체가, 특히 작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동행하는 것으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선교의 원점으로서 교회의 행보에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말했습니다.

선교협의회는 협의 내용을 "일본 성공회 <선교 · 목회의 십년> 제언"에 정리하고 각 교구와 교회에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기능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언"이 활용 됨으로써 각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승하는 기능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세가와 키요즈미 사제의 보고

■신지마치 (후쿠시마) / 민요 · 샤미센 · 북 연주

나고야에서, 자원 봉사자가 신지 마을을 방문, 이틀간 신지베이스와 3 개의 가설 주택의 집회소에서 민요 · 샤미센 · 고전 북의 연주를 선보였다. 어떤 가설에서도 대 절찬으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감격해 우는 사람도, 연주 후에는 전원과 악수, 가설 주택 여러분과 재개 약속을 했습니다.



■센다이시 (미야기현) / 외국인 회복 프로그램

워크숍 및 상담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의 케어를 할 1 박 프로그램을 오후나토시, 센다이, 이와키, 모리오카에서 개최. 매회 성공회 성찬 식도 실시합니다. 총 4 회 종료 후, 각 회의 대표자회를 열고 외국인 거주자가 있는 지역의 과제 등을 공유하고, 정부와 현이나 시, 국제 교류회 등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시 (미야기현) / 일본어교실

센다이 사무실에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실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본어 능력 시험 4 급 합격. 피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의 일본어의 읽기 쓰기가 되지 않아 생각하는 것 같은 일에 종사 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이 계기입니다. 시험일까지 약 2 개월 동안 12 회 개강 예정. 모두 공부의 기회를 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성공회 수좌 주교 프레드릭 힐즈 대주교, 폴 휘리 부제 방문



이전부터의 강한 희망에 의한 내방입니다. 1 일째는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보고를 DVD 로 보면서 자원 봉사자들과의 회의, 2 일째는 " 이재민 지원 센터 신지" 주변의 피해 지역을 피해자의 안내로 방문했습니다. 중부 교구의 성립 100 주년 기념 사업에 참가 하기 직전의 짧은 기간 동안 이었습니다만, 실제로 피해 지역을 보고 이재민을 만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말해 주셨습니다.

"해일로 피해입은 해안에 작은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에 감동,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후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이 기뻐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원전없는 세상을 요구 하는 일본 성공회의 호소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 성공회의 모든 교구, 교회, 교역자, 신도가 하나가 되어, 재해 입은 분들을 치유하고,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걷는 것을 계속 노력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회로 이어진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용기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이 축복받은 "좋은"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 ① 신지 마을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 보는 힐즈 주교 (중앙), 휘리 부제 (왼쪽) ② 신지 베이스에서 피해를 입은 신도로부터 이야기를 들음 ③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에서 ④ 야마모토 마을의 후지 유치원 새원 건물에서 아이들과 만남.

가설지원

- 다함께 노래하는 모임 / 마쓰쿠라 가설(가마이시)
- 요리를 즐기는 모임 / 노다마을 가설 (가마이시)
- 체조프로그램 / 가미나카시마 (가마이시)
- 플라워아트를 즐기는 모임
/ 가미나카시마 가설 · 소와엔 가설 (카마이시)
- ▲ 장보기 버스 투어 / 나토리시
- ◆ 카페 / 이와키시

오 나 하 마 에 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 카페 ". 일본
성 공 회 의 교 토 ·
오사카 ·고베 교구,의
협 동 하에 부 인 회 의



수제과자와 커피 원두의 제공 등을 받고, 가설
주택에서 지 내는 분들에게 안심 , 마음이 편안
해지는 공간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중에 두
보란티아 그 룹이 생겨나 준비, 접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나하마 성 디모데 교회, 히타치 성
안드레아 교회의 신도가 참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 ◆ 핫코나 / 히로다,사쿠다,간코야 (신지마치)
- ◆ 커트 서비스, 지압 맛사지,신지요세 / 신지마을

그 외에도 ... 호별 방문, 방석 배포, 휴게실
프로그램, 안심 시네마 (영화 감상회), 톨립 구근
심기 등

외국인지원

- ▲ 개별지원 / 이시노마키시, 다가조시, 센다이시
- ▲ 영어 회화 교실 개강 도움 / 나토리시
- ▲ 손수 만드는작업 / 미나미산리쿠
- ▲ 일본어교실 / 센다이시
- ▲ 홈헬퍼 2 급 자격취득 강좌 / 게센누마시
- ▲ 회복프로그램 / 센다이시

장애자 지원

- ▲ 상품구입지원, 판매지원 / 센다이시 (마도카)
- ▲ 가설방문 / 센다이 (마도카),게센누마 (히마와리)
- ▲ 이모니터 참가, 작업 도움 / 게센누마 (히마와리)

기타

- ◆ 바람 막이, 샤워실 울타리 만들기 등 베이스 정비
/ 신지 마을
- ◆ 고리야마 성 베드로 성 바울 교회 회관 건축 도움
/ 고리 야마시
- ◆ 운동회 등 와카 마츠 성 애 유치원, 세인트 폴
유치원 행사 도움 / 아이즈와카 마츠시, 고리 야마
- ◆ 계란 손질, 나누어 줌 / 신지 마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거점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www.nskk.org/walk/>

칼럼 그날 그때, 그 사람.

⑤일본어로 말하자!

미야기현의 시즈가와에 사는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제 소품을 만들면서, 센다이 지역의
자원 봉사자와 일본어 회화를 연습하는 모임입니다. 그 가운데 한 필리핀
여성로부터 일본어에 얹힌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일본인에게 "화장실은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하고, 손을 씻고 싶은
생각, 씻는 장소에 안내 되었을 때 매우 곤란한 얼굴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손씻는 "과 "화장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가 "손 씻으러 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 것을 "화장실이니"라고 착각 해 버릴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씻기 ,양치질"의 "화장실"이었습니다.

또한 "변소 "등 사전에 쓰는 말이 이전 시대의 말임을 모르고 말하고, 일본인에게 놀란 수 있고, 마음은
있지만 말로 되지 않는 것을 "모뇨모뇨"고 흘리는 말, 그리고 배워, 흥내를 해 후회 때 "이번에는 모뇨모뇨 ...
(큰 일이었지요 등의 마음을 담아)"라고 말해 버린 것 등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우스갯 소리이지만, 즐거운 경험도 아픈 경험도 하면서 일본어를 기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 여러분 덕분에 "일본어의 불가사의"에 주의합니다.

(2012 년 10 월 센다이 지역 베이스)



함께걷자! 프로젝트 소식지 제 16 호 2012 년 12 월 1 일 발행

「함께걷자! 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금 10:00~17:00

CLOSE

토·일·축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4-5 크라이스 빌딩 2 층

TEL : 022-265-5221

FAX :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web : <http://www.nskk.org/walk/>